

##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에 나타난 성품 윤리\*

-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김상기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 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1.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

### II. 웨슬리 덕 윤리 분석을 위한 방법론

1.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사상
2. 하우어워스의 기독교적 덕 윤리와 웨슬리

### III.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와 덕 윤리

1. 산상수훈설교의 덕 윤리적 재구성과 8주덕
2. 8주덕 보론 : 덕의 사회성과 고양성, 그리고 장애물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4.05>

\* 본 논문은 2022년 10월 5일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가 주최한 제18회 사중복음 정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 ABSTRACT •

---

A Study on Character Ethics in the Sermon on the Mount  
by John Wesley

Researcher, Kim, Sang-Keel (The Global Institute for the Fourfold-Gospel  
Theolog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reorganize the virtue ideas found in “Sermon on the Mount” by John Wesley according to the virtual ethics methodologies of Alasdair MacIntyre and Stanley Hauerwas. In the aspects of virtue ethics that focus on the being of a doer and emphasize a doer’s character or virtue, the study analyzed the true nature of virtue ethics in Wesley’s “Sermon on the Mount” with a focus on the teleology, historicity, community spirit, and narrative concepts of MacIntyre and Hauerwas.

Wesley’s character ethics was understood in the four following ways: First, Wesley’s sanctification theory is thoroughly teleological. Second, his sanctification ethics is historical in that it was conceived against the backdrop of periodic contexts and communal in that the main virtues in his sermons happen in church. Third, his virtue ethics developed through his sermons that he performed throughout his life, and his sermons were completely dependent on so-called “God’s narratives” such as the Bible, the Gospel, and Lord’s sermons on the mount. Finally, Christian virtues emphasized by Wesley follow those of eight blessings, so-called Eight Main Virtues including humility, hope, gentleness, justice, love, truth, peace, and hardship.

**Key words:** John Wesley, Stanley Hauerwas, Virtue or Character Ethics, Sanctification, Teleology, Historicity, Community spirit, Narrative, Eight Main Virtues

---

## I. 들어가는 말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산상수훈설교에 나타난 덕의 사상을 멀게는 현대 덕윤리 창시자인 알래스대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 가깝게는 기독교적 덕 윤리 분야의 권위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사상을 방법론으로 하여 재해석하고, 나아가 웨슬리가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적 주요 덕목을 8가지로 제시하는 데 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이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세 윤리의 상징인 토라를 넘어 신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윤리의 상징이자, 기독교 신학의 원초적 사상체계이며, 기독교 윤리의 본질적 명제를 담고 있는 선언문이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사회운동가로서,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살았던 웨슬리의 사상은 150여 편의 설교에 녹아 있으며,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교리는 자신이 표준설교라고 구분했던 44편의 설교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표준설교 안에서도 그의 신학 교리 및 윤리 사상의 요체는 산상수훈설교 13편 속에 응축되어 있다. 그의 산상수훈설교는 실제로 1739년 4월 1일 브리스톨에서 시작한 야외설교의 본문이었으며, 1746년까지 백 번 넘게 설교했으며, 10년간 다 들어서 완성한 것이다.

웨슬리는 예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자신의 성화론의 요체이자 가장 핵심적 근거로 보고 있다. 그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영광스러운 하늘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한 가르침으로써,<sup>1)</sup> 하나님을

1) John Wesley/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 산상설교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71.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성결의 특성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설교며,<sup>2)</sup> 진정한 기독교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인간 영혼의 아름다운 기질들과 성결함 속에 내재된 성품과 감정들을 다루고 있음을 밝힌다.<sup>3)</sup>

본 연구는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를 오늘날 규범윤리학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덕 윤리의 틀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존재자의 행위(doing)보다는 행위자의 존재(being)에 주목하고, 행위를 위한 도덕규범이나 의무보다는 행위자의 성품이나 덕을 강조하는 덕 윤리의 측면에서 그의 윤리 사상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윤리학 분야에서 덕 윤리 혹은 성품 윤리의 길을 새롭게 열고 있는 매킨타이어와 하우어워스의 사상을 방법론으로 활용하여 웨슬리의 덕 윤리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하우어워스는 웨슬리의 성화론을 자신의 덕 윤리의 중요한 신학적 전거로 삼고 있는 보기 드문 인물이다. 본 연구는 웨슬리 이전의 철학자들(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과 신학자들(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과 달리 그가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적 주요 덕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오늘날 산상수훈에 관한 신학적 해석은 신약학과 조직신학, 그리고 기독교윤리학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신약학자 박수암은 예수의 윤리로서의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의 유형을 율법유형, 실존유형, 그리고 복음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sup>4)</sup> 첫째, 율법으로서의 산상수훈 해석에는 톨스토이, 나우만(Friedrich Naumann), 한스 빈디쉬(Hans Windisc),

2) 위의 책, 73.

3) 위의 책, 268.

4) 박수암, 『산상보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14-29.

요한네스 바이스(J. Weiss), 슈팅에(C. Stange), 키텔(G. Kittel)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 둘째, 산상수훈을 실존적 측면에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가지도록 충동하는 자극제로 보는 헤르만(W. Hermann)과 디벨리우스(M. Dibelius) 등의 학자들은 산상수훈을 윤리(ethics)가 아니라 기풍(ethos)이며, ‘하라(to do)’가 아니라 ‘되라(to be)’의 논조로 해석한다. 셋째, 산상수훈을 복음으로 보려는 관점에는 산상수훈을 보편윤리가 아니라 특수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준 ‘돌격대의 윤리’라고 규정한 칼 하임(Karl Heim)과 요아힘 예레미야스(Joachim Jeremias) 같은 학자들이 있다.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는 위에서 언급한 율법적 관점, 복음적 관점,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의 성품과 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실존적 관점 모두를 담지하고 있다.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에 나타난 웨슬리의 대표적인 덕목을 8주덕으로 제시한 연구는 현재까지 시도된 바가 없다. 특히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그의 사상을 기독교적 덕 윤리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최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새로움이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웨슬리의 성화론의 큰 줄기 속에 출발하고 있으며, 그의 산상수훈설교는 이른바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신학’, ‘성결론’을 위한 원초적 자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의 성화론에 대한 국내 연구는 감리교를 비롯한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 예컨대, 유창형은 성화의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하여 칼빈과 웨슬리의 견해를 비교 고찰하고 있으며,<sup>5)</sup> 이찬석은 웨슬리의 의지의 단순성과 칭의 사상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탐색했으며,<sup>6)</sup> 김성민은 웨슬리의 회심체험을 통해 나타난 신비주의 사상을 통해 그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해석하

5) 유창형,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에 있어서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한 비교 고찰,” 『성경과 신학』 45 (2008), 112-141.

6) 이찬석, “그리스도인의 완전,” 『한국개혁신학』 32 (2011), 49-81.

고 있다.7) 오성욱은 존 웨슬리의 성결론을 그의 설교가 아니라 일기와 저널을 자료로 하여 교회갱신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8) 강병오는 웨슬리의 성화신학을 정치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9) 무엇보다도 최근 연구로는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를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트, 이집트의 마카리우스,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들의 신화(神化) 관점에서 재해석한 류재성의 논문10)과 웨슬리 성결론의 타자성을 레비나스의 현상학의 주요 개념인 지향성을 중심으로 논구한 배명지의 논문11)이 돋보인다.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 속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화자와 청자의 문제를 다룬 양재훈의 영어논문12)과 산상수훈설교가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신학적 가르침이어야 함을 주장한 이선희의 논문13)이 있다. 특별히 이선희의 논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윤리학 분야인 관계로 비평적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는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으로 보는 것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편향된 해석이자, 웨슬리의 의도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윤

7) 김성민, “존 웨슬리의 신비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완전,” 『신학과 실천』 28 (2011), 435-470.

8) 오성욱, “교회갱신의 관점에서 전망한 존 웨슬리의 성결론,” 『신학과 선교』 56 (2019), 181-217.

9) 강병오, “존 웨슬리의 성화신학과 정치윤리,” 『한국조직신학논총』 36 (2013), 147-178.

10) 류재성,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 재해석,” 『신학과 실천』 81 (2022), 315-353.

11) 배명지, “레비나스 현상학을 통한 존 웨슬리 성결론의 타자성 연구,” 『한국신학논총』 67 (2022), 165-193.

12) Yang Jayhoon, “J. Wesley and the Addressee of the Sermon on the Mount in his Standard Sermons 16-28,”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0 (2008), 25-42.

13) 이선희, “John Wesley의 산상수훈 설교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37 (2013), 249-282.

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길”로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신학과 윤리에 대한 분리주의적 이분화의 사고로써,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가 제시하고 있는 신학과 윤리의 통합적 사유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웨슬리는 이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 특징을 정의하려 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칭의 신앙의 열매’요, ‘복음적 윤리’에 관한 것이다.<sup>14)</sup> 따라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산상수훈설교는 칭의와 성화, 복음과 윤리가 분리될 수 없다. 웨슬리가 그의 설교에서 제시하는 마음의 가난(겸손), 애통(소망), 온유, 청결(진실), 평화, 사랑, 의에 목마름(정의), 박해(고난)라는 성품들은 하나님에 대한 덕(신학)임과 동시에 사람에게 대한 덕(윤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를 신학이나 윤리나 ‘양자택일적 분리’의 관점을 넘어, 신학이자 윤리라는 ‘양자공유적 통합’의 결에서 탐색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 II. 웨슬리 덕 윤리 분석을 위한 방법론

### 1.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사상

오늘날의 윤리적 경향은 원칙과 규범 중심의 윤리에서 덕 중심의 윤리로, 도덕에서 행위와 결단을 강조하던 경향에서 도덕 행위자 자신에 대한 강조로, 그리고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던 이론적 연구에서 경험을 중시하는 이야기 방법론으로 변화하고 있다.<sup>15)</sup> 아울러, 사회이론 분야는 허무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과 고대 정치철학의 관점이 공존하는 추세를 따르

14) Thomas C. Oden, *John Wesley's Teachings 4, Ethics and Society*, 장성결 역,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4, 윤리와 사회』 (부천: 웨슬리 르네상스, 2020), 312.

15) 한기재, “웨슬리와 윤리,”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의 현대적 이해』 (파주: 도서출판 공감마을, 2018), 431.

고 있다.<sup>16)</sup>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윤리학자 알래스다어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 그의 책 『덕의 상실(After Virtue)』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오늘날 도덕성의 언어가 심각한 무질서에 처해 있다<sup>17)</sup>고 전제한 후, 근대 계몽주의적 기획으로서의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와 벤담의 공리주의 윤리의 실패, 즉 전통적 규범윤리학의 종말을 선언한다. 즉 도덕을 이성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기획은 분명히 실패했다는 것이다.<sup>18)</sup> 그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신학에 대한 세속적 거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거부의 결과로 인한 목적론적 관념의 제거로 보았다.<sup>19)</sup> 즉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연적 목적을 도덕적 추론에서 배제하고 도덕의 보편적 정당화를 추구하는 계몽주의적 기획을 추종한 결과 니체적 허무주의에 귀착하게 되었다<sup>20)</sup>고 진단한다. 이러한 역사 비판적 성찰을 통해 그는 규범윤리학의 대안으로서 덕의 윤리를 제안한다.

덕의 윤리는 기존의 규범윤리학의 논의가 인간 행위의 의무나 책임에만 지나치게 한정되었음을 인식하고<sup>21)</sup>, 행위보다는 행위자의 존재를 강조한다. 규범윤리학이 구체적인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보편적 도덕원리나 법칙에 천착했다면, 덕 윤리는 행위자의 지속적이고 내재적인 품성이나 성향에 주목한다.<sup>22)</sup> 근대 계몽주의 윤리가 행위 중심적이고 원리

16) John Milbank, *Theology and Social Theory: Beyond Secular Reason*, 서정원·임형권 옮김, 『신학과 사회이론: 세속이성을 넘어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618.

17)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2007), 37.

18) 위의 책, 122.

19) 위의 책, 130.

20) 문시영,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위한 조건과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44 (2019), 226.

21) 심장후, 노철현, “덕 윤리학에서의 덕 개념과 교육,” 『한국철학논집』 48 (2016), 11.

중심적이라면, 덕 윤리는 좋은 삶과 행위자의 성품과 덕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함양을 강조한다.<sup>23)</sup> 규범윤리학이 “인간이 해야 할 옳고 그른 행위는 무엇인가?”를 물었다면, 덕 윤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매킨타이어는 자신의 도덕 이론의 토대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 전통의 복원에서 찾는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크게 덕의 개념, 목적론, 기능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를 도입한다.<sup>24)</sup> 첫째, 그는 덕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성질이자(호메로스), 인간적인 텔로스(telos)<sup>25)</sup>의 성취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성질이며(아리스토텔레스, 신약성서, 아퀴나스), 나아가 지상적, 천상적 성공을 성취하는데 유용한 하나의 성질(프랭클린)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통합하여 정의한 후, 이를 서로 대립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sup>26)</sup> 둘째,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특정한 의도와 목표를 가지는 까닭에 특정한 텔로스(목적)를 향해 운동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목적론적이다.<sup>27)</sup> 셋째, 이러한 목적론적 덕의 개념은 또한 자유인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종류의 실제적 탁월성(아레테)이라는 면<sup>28)</sup>에서 기능주의적이다. 넷째, 이러한 덕은 그것이 처해 있는 사회 구조라는 맥락으

22) 노양건, “덕과 윤리,” 『범한철학』 71 (2013), 217.

23) 김우영, “덕 윤리에 있어서 도덕 판단의 기준,” 『범한철학』 80 (2016), 33.

24) 김대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현대적 계승-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서양고전학연구』 Vol., no. 28 (2007), 202-208.

25) 텔로스(telos)라는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의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만든 4원인론 가운데 하나다. 이른바 질료인(causa materialis), 형상인(causa formalis), 작용인(causa efficiens), 목적인(causa finalis) 중에서 네 번째 원인이 되는 목적(telos)에서 비롯했다. 즉 텔로스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므로, 목적은 곧 운동의 원인이다.

26)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358.

27) 위의 책, 292.

28) 위의 책, 245.

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sup>29)</sup> 모든 덕들이 실천되는 곳, 혹은 덕들을 정의하는 데 척도가 되는 폴리스라는 환경적 맥락이 있다<sup>30)</sup>는 면에서 공동체적이다.

한편, 매킨타이어에게 있어서 “행위자는 행위와 동일시되며, 행위자는 행위를 통해 존재하며, 따라서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다”<sup>31)</sup>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즉 규범윤리학이 주목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덕 윤리가 주목하는 행위자 자신에 대한 판단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간파한 것이다. 따라서 덕 윤리는 규범 윤리의 명제를 포괄하는 개념이자, 규범 윤리의 대안 혹은 보완 윤리로 자리 잡는다.

물론 매킨타이어가 제창한 덕 윤리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그중에 핵심적인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덕의 윤리가 과연 기존의 규범 윤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이다. 즉 덕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위 원리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비판자들은 덕은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편 가치라기보다 특수 가치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충성, 용기, 절제, 인내 등은 덕의 개념이지만, 그 덕은 각각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그릇된 것일 수 있으며, 결코 보편적인 도덕 원칙으로 정립되기에는 상대적 개념일 수 있다는 공격이다. 따라서 덕 윤리가 제시하는 이러한 덕목들은 자유주의적 도덕 이론에 따르면 사적 가치의 영역으로 축소될 수 있다.<sup>32)</sup> 이른바

29) 위의 책, 247.

30) 위의 책, 269.

31) 위의 책, 244. 매킨타이어는 헤르만 크랭켈(Hermann Frankel)의 호메로스적 인간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덕 윤리의 명제가 규범윤리의 명제를 포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사람은 그의 행위와 동일시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가 완전히 이해되도록 만든다. ...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들이 행하고 말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32) 노양진, “덕과 윤리,” 위의 책, 232.

무원칙주의, 상대주의, 특수주의로 오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둘째, 덕의 형성 토대로서의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원자적 인간으로 존재하는 현대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개념인가에 대한 것이다. 매킨타이어는 덕의 환경적 맥락으로서 아테네의 폴리스를 예로 들어 자신의 공동체주의의 논지로 사용하지만, 오늘날 덕 윤리가 형성되고 함양될 수 있는 구체적 공동체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오늘날처럼 종교, 인종, 계층, 성, 그리고 국내정치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얽혀있고, 다른 문화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sup>33)</sup> 그가 말하는 폴리스가 정치적 공동체인지, 종교적 공동체인지, 사회적 공동체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덕 윤리는 모호한 사적 영역의 윤리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 2. 하우어워스의 기독교적 덕 윤리와 웨슬리

하우어워스는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를 신학, 좁게는 기독교윤리 담론에서 적용 혹은 재구성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기독교 신학과 덕 윤리를 연결하는데 아무런 논리적 모순을 겪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칼뱅과 웨슬리의 성화론이 덕의 윤리 혹은 성품의 윤리를 전개하는데 특별한 통찰과 조명을 준다<sup>34)</sup>고까지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관점으로 장 칼뱅과 존 웨슬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개념을 다룸으로써 입증하고자 했고, 그들의 관점이 덕 혹은 성품 윤리를 제안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덕 윤리를 차용하고 있음을 밝혀내고자 했다.<sup>35)</sup>

33) 박민규, “알래스대이어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담론,” 『한국조직신학논총』 31 (2011), 210.

34)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ical Ethics* (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5), 10.

하우어워스는 기본적으로 매킨타이어의 문제의식과 그가 제기하고 있는 덕 개념, 목적론적 윤리, 기능주의, 공동체적 윤리를 폭넓게 공유한다. 그러나 기독교윤리학자로서 그는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가 현대 윤리학 분야에서 분리되어 이해하려는 경향에 대해 비판적이다.<sup>36)</sup> 그는 매킨타이어가 말하는 텔로스, 덕, 그리고 (의무)법칙들은 본래적으로 양립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고 본다.<sup>37)</sup> 그는 현대 윤리학의 문제는 덕이 먼저냐, 의무가 먼저냐가 아니라, 덕과 의무의 개념을 공동체적 맥락에서 분리함으로써, 윤리의 공동체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 그리고 비-내러티브적 측면을 보지 못함에 있다고 지적한다.<sup>38)</sup> 따라서 그의 관심사는 모든 사회를 만족시킬만한 보편적 덕 윤리의 전개가 아니다. 오히려 덕 윤리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여기에 특정한 전통 및 사회가 연관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sup>39)</sup> 역사성과 공동체성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이다.

하우어워스의 이러한 태도는 역사와 공동체적 맥락을 무시한 채, 만고 불변의 보편적인 덕 윤리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는 모든 이론은 특정한 공동체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덕목들은 인간의 역사적 본성의 반영임을 강조한다.<sup>40)</sup> 따라서 다양한 덕목들의 등장은 그만큼 다양한 역사적 맥락과 공동체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5)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문시영 옮김,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 (서울: 북코리아 공흥, 2012), 85.

36) Stanley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192.

37) 위의 책, 192.

38) 위의 책, 193.

39) 위의 책, 218-219.

40) 위의 책, 234-235.

하우어워스는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적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이를 일반윤리 분야에서 머물지 않고 신학윤리 분야에서 기독교적 덕 윤리의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를 넘어 칼뱅, 웨슬리, 에드워즈에 이르기까지 다룬다. 본 연구는 하우어워스의 이러한 역사적 탐색 전반을 추적하기보다 웨슬리의 덕 윤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방법론적 추출을 위하여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에 대한 그의 사상을 그의 덕의 개념, 목적론, 역사성, 공동체성, 그리고 이야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덕의 개념과 전통적 덕목들

하우어워스는 고대 그리스인이나 그리스도인에게 덕은 도덕의 중심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윤리학에서는 이를 간과해 왔음을 비판한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 이래 형성된 칸트의 의무주의, 벤담의 공리주의를 필두로 한 규범윤리의 대세적 흐름 속에서 기독교윤리 또한 이에 편승해 왔고, 행위자의 존재보다는 존재자의 행위에 주목했다. 개인윤리에서는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메타윤리적 관점이 발달했고, 사회윤리에서는 구조적 악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집단윤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몰두했다. 기독교 개인윤리는 모든 존재자가 세상의 선악을 판단해야 할 상황 앞에서 있는 긴급한 도덕 행위자로 전제했고, 기독교 사회윤리는 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른바 상황윤리, 공공신학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했다. 여기에는 선과 악, 옳고 그름, 책임, 의무, 규범, 선택, 결단, 상황, 공리, 정의, 판단, 가치 등의 윤리 관련 언어들이 쏟아졌다. 이르는 동안 덕이라는 인간의 본래적 본성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고, 인간의 성품 또한 윤리적 판단에 그리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매킨타이어와 같이 하우어워스는 바로 계몽주의 윤리학이 간과했던 덕과 성품이 사실은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 더 본질적이고 일차적이라고 인식했다. 하우어워스는 덕이란 원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능력을 뜻하는 ‘탁월함(아레테)’이라는 뜻을 가진 개념이었음을 밝히면서, 플라톤은 이를 ‘지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으로, 아퀴나스는 ‘정념들 사이의 중용’으로, 칸트는 ‘법칙을 준수하는 내적 자유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했음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하우어워스 자신은 정작 덕이란 그 무엇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부과된’ 것이라고 정의한다.<sup>41)</sup> 이는 인간의 성품과 덕이 은혜와 선물로 주어졌다고 보는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능력으로서의 덕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의무나 결단보다 일차적이며 우선적이다. 이에 대하여 하우어워스는 덕 윤리와 현대 계몽주의적 규범윤리를 비교하면서 덕 윤리의 우선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품이 좋은 개인들은 스스로 결단하거나 선택한다. 다른 사람도 결단하고 선택한다. 차이가 있다면, 덕의 윤리에서는 결단을 도덕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덕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나 심각한 결단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자아란 단순히 이러한 결단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 성품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진흙탕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그것에 대한 이해방식은 성품의 한 가지 기능에 속한다. 따라서 ‘덕성훈련’은 우리가 처한 도덕적 갈등의 상황을 직면하게 한다. 그 갈등으로 인해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성품이 키워지거나 혹은 미래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성품이 함양될 것이다.<sup>42)</sup>

41) Stanley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217-218.

42) 위의 책, 223.

하우어워스의 진술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진흙탕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인간에게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에 대한 당장의 윤리적 처방전 혹은 메뉴얼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흙탕에 직면하기 전부터 덕과 성품의 훈련을 통한 내적 탁월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덕윤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덕들이 중요하며, 그 덕들을 어떻게 훈련하여 영혼과 신체에 각인시키며,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탁월하게 도덕적 완성을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른바 덕목들의 등장이다.

하우어워스는 물론 덕목들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고 전제하고, 몇몇 고전적 사상가들의 주요 덕목을 소개한다.<sup>43)</sup> 플라톤은 용기, 절제, 지혜, 그리고 정의의 덕을 강조하여 4주덕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 절제, 관용, 위엄, 고결함, 정중함, 우정, 진실함, 재치, 정의를 제시한 후, 이러한 덕목들을 덕스럽게 하는 것으로서의 중용을 강조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네 가지 형식으로서의 절제, 용기, 정의, 신중으로 풀었으며,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합하여 절제, 용기, 신중함, 정의를 영혼의 기능으로 설명한 후,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적 덕목들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하우어워스도 2018년 자신만의 덕의 목록을 정리하여 *The Character of Virtue*(『덕과 성품』 홍종락 역, IVP)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하우어워스가 친구 새뮤얼 웰스(Samuel Wells)의 아들 로리의 대부가 되어 15년간 세례 기념일에 맞춰 보낸 편지를 묶은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중요한 14가지의 덕을 담고 있다. 이른바, 자비, 진실함,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함, 한결같음, 겸손, 절제, 너그러움, 믿음<sup>44)</sup>에 대하

43) 위의 책, 235-238.

44) Stanley Hauerwas, *The Character of Virtue*, 홍종락 역, 『덕과 성품』 (서울: IVP, 2018).

여 짧지만 인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덕목을 소개하고 심지어 자신만의 덕목까지 출간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성품 윤리의 신학적 모형으로 웨슬리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웨슬리가 강조했던 구체적 덕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부분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자 가장 핵심적인 연구 주제다.

## 2) 덕 윤리의 텔로스<sup>45</sup>와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앞서 언급했듯이, 매킨타이어는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특정한 의도와 목표를 가지는 까닭에 특정한 텔로스, 즉 목적을 향해 운동하는 존재라고 봄으로써 목적론적 덕 윤리의 기본적 틀을 수립했다. 매킨타이어가 자신의 목적론적 윤리의 방향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 개념에서 찾았다면, 하우어워스는 오히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칼뱅과 웨슬리, 특히 웨슬리의 성화론에서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양새를 취한다. 그는 성품의 윤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duration), 성장(growth), 그리고 온전함(unity)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sup>45</sup>), 이러한 목적론적 성품의 윤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학적 전거로서 웨슬리의 성화론에 주목한다.

웨슬리 신학과 윤리의 핵심은 성화론이다. 루터는 칭의를 강조하고, 칼뱅은 칭의와 성화의 두 차원을 말했다. 그러나 웨슬리는 칼뱅의 성화 교리를 더욱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sup>46</sup>), 사랑의 성화를 종교 그 자체라고까지 강조함으로써 성화론이 자신의 신학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 즉 텔로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웨슬리의 가장 독특한 교리인 ‘성화론’ 혹은

45)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ical Ethics*, 179.

46) 김흥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김흥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순 공저,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5), 252.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나타나는 목적론적 성향에 대해 이후정은 이를 ‘새 창조의 역동적인 목적론 혹은 텔로스’로 확대한다.<sup>47)</sup> 그에 따르면, 웨슬리의 사랑과 행복, 성화와 신화(영화)의 목적론은 완전하고 순수한 원래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우월한 새 창조를 향해 전진하는 것, 즉 죄에 대한 종국적 승리를 넘어 영광스러운 해방을 기다리는 생동적인 희망의 목적론으로써, 타락의 역전과 승리의 미래적 진보다.<sup>48)</sup> 아울러, 웨슬리의 성화론은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랑의 힘이 자라며 온전한 성화에 이른다는 면에서 윤리적 차원을 담고 있으며<sup>49)</sup>, 성화론이야말로 기독교윤리에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sup>50)</sup>고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성화론은 성품 윤리의 신학적 전형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웨슬리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한 가지 사역의 두 가지 양태(modes)이자, 두 가지 상이한 측면(aspects)이다.<sup>51)</sup> 그는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진보이자 과정이라는 목적론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보았고, 웨슬리는 칼뱅보다 성화 자체를 더 독립적으로 볼 정도로 강조했으며, 성화로 가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도 칼뱅보다 확실히 긍정적으로 인식했다고 평가한다.<sup>52)</sup> 또한 하우어워스는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짓는 언어로 진보(progress)와 완전(perfection)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성화론을 인간의 덕과 성품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

47) 이후정, “존 웨슬리와 새 창조의 텔로스,” 김홍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순 공저, 『존 웨슬리의 역사 신학적 조명』, 436.

48) 위의 책, 445-451.

49)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185.

50) 위의 책, 197.

51) 위의 책, 186-187.

52) 위의 책, 189-192.

했음을 밝히고 있다.<sup>53)</sup>

하우어워스는 매킨타이어가 말하는 텔로스 개념이 웨슬리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념과 완벽한 병행을 이룬다고 생각했다.<sup>54)</sup> 그에 따르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텔로스적인 틀 속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단계(stages)’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sup>55)</sup> 그는 웨슬리의 설교 “구원의 성서적인 길”에서 다음 여섯 가지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음을 소개한다<sup>56)</sup> : ① 선행은총의 작용 ② 칭의 이전의 회개 ③ 칭의 혹은 용서 ④ 신생 ⑤ 칭의 이후의 회개와 성화를 향한 점진적 진행 ⑥ 완전한 성화로 나아간다.

하우어워스는 이러한 웨슬리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에 의한 성화의 텔로스적 완전의 개념은 오늘날 ‘성숙(maturing)’ 혹은 ‘온전함(wholeness)’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성숙과 온전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구되는 가장 적절한 의미의 텔로스라고 주장한다.<sup>57)</sup> 그런 의미에서 하우어워스는 웨슬리가 완전성에 대한 신학적 확신과 가톨릭적 실천을 결합한 인물이자, 개신교의 이냐시오 로올라(Ignatius Loyola)<sup>58)</sup>와 비견되며, 감리교는 ‘가톨릭교회의 프레임 안에 있는 복음주의적 제도’일 수 있다는

53) 위의 책, 195.

54) Stanley Haurwas, *Sanctify Them In The Truth*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6), 133.

55) 위의 책, 134-135.

56) 위의 책, 134.

57) 위의 책, 150.

58) 16세기 루터가 가톨릭에 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켜 프로테스탄트를 창시한 저항적 개혁가였다면, 이냐시오 로올라(Ignatius Loyola)는 같은 시기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응하는 가톨릭교회 내 개혁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서, 회심 후 사제가 된 후 예수회를 창설하였는데, 그가 쓴 『영신수련(Spiritual Exercise)』은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향한 4주간의 실제적인 영성 훈련 과정을 담은 교재다. 예수회는 군대조직처럼 철저한 규율과 복종과 훈련을 통한 영성을 강조하는데, 이런 점에서 하우어워스는 웨슬리와 로올라가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있다고 본다.

알버트 아우틀러(Albert Outler)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도 웨슬리와 같이 ‘복음주의적 가톨릭인(evangelical Catholic)’이라고 고백한다.<sup>59)</sup>

### 3) 덕의 역사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웨슬리의 교회성

역사성과 공동체성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강조는 그의 덕 윤리를 감싸고 있는 방법론적 테두리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그의 인간관은 덕 윤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에 따르면, 덕 윤리 또한 인간을 역사적 존재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덕목들 또한 역사적 맥락 속에 있는 공동체의 전통에서 나온다.<sup>60)</sup> 이는 현대윤리학이 고정불변의 보편 원칙과 규범을 특징한 역사적, 공동체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비판적 입장표명이다. 반면 덕 윤리는 오늘날 다양한 역사와 공동체가 다원적으로 널려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도덕적 세계관임을 표방하는 선언이다.

하우어워스는 덕의 역사적 본질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식은 각각의 사회와 사상가에 따라 다양한 덕을 권장한다는 사실에 있다<sup>61)</sup>고 보았다. 즉 플라톤이 권하는 덕이 다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덕이 다르며, 아퀴나스가 주목하는 덕목이 다른 것은 각자의 역사적 맥락이 상이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우어워스는 덕목들이 다양한 것에 대해 덕 윤리가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말해주지 못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역사적 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로 인간이 지닌 역사성에 따라 개인과 사회에는 다양한 덕목들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sup>62)</sup> 그는 여기서 1세기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예

59) 위의 책, 83.

60) Stanley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243.

61) 위의 책, 235.

62) 위의 책, 239.

로 드는데, 그들이 추구했던 소망과 인내의 덕목은 당시 로마제국 치하의 박해적 상황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sup>63)</sup>

하우어워스에게 있어서 덕 윤리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특정한 공동체적 맥락 또한 중요하다. 매킨타이어가 고대 그리스 시대의 공동체적 맥락을 폴리스라는 공간에서 찾았다면, 하우어워스는 기독교적 덕의 윤리가 함양되는 공동체는 교회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해체적이고 원자적인 역사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어떤 전문가나 정부가 행하는 방식보다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공동체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sup>64)</sup>고 주장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도덕발달을 위한 훈육과 함양은 자아로 하여금 귀속감을 갖게 할 대안적 사회, 즉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sup>65)</sup> 성품은 추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 즉 '이야기를 가진 사회'를 통해 형성된다.<sup>66)</sup>

하우어워스에게 있어서 이 사회는 바로 교회며, 교회는 곧 덕의 학교이자 덕목들이 훈련되는 유일한 대안적 공동체다. 그는 교회의 책무는 정부의 합법성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에서 두려움이 아닌 신뢰가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sup>67)</sup>이라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십자가에 못박힌 구세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말해주는 덕의 공동체며,<sup>68)</sup>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make)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의 공동체가 무엇

63) 위의 책, 248.

64) 위의 책, 247.

65) 위의 책, 289-290.

66) 위의 책, 180.

67) 위의 책, 172.

68)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103.

인지 보여주는(showing) 공동체이기를 배워야 한다.<sup>69)</sup> 하우어워스의 기독교적 덕윤리에 있어서 덕의 훈련 및 함양의 공간적 토대는 분명히 교회며, 비록 그 교회가 사회로부터 분파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교회는 교회 자체의 방식에 충실해야 함을 강변한다.

웨슬리의 덕 윤리는 철저히 교회 중심적이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한 덕의 함양은 개인적 신비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sup>70)</sup> 이는 그가 감리교회를 창립하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조직화하여 운영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대도시에 연합회(United Societies)를 만들고, 그 안에 속회(Classess)를 나누고, 속회는 다시 조(bands)로 세분화하여 정기적 만남을 통해 신앙의 권면과 친교를 도모하였다.<sup>71)</sup> 웨슬리는 속회를 통해 공동의 성화를 이루도록 훈련시킴으로써, 개인주의적 영성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통한 영성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72)</sup> 웨슬리는 영성생활이란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의 율례(sacrament)를 틀로 하는 규칙적이고 방법적인(methodical)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sup>73)</sup> 심지어 웨슬리는 거짓 선지자(목회자)가 교회에서 성례의 집행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례를 거부하지 말 것을 권한다.<sup>74)</sup> 이는 하우어워스가 덕의 함양은

69) 위의 책, 103.

70)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김홍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순 공저,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264.

71) 임승안, “요한 웨슬리의 생애,” 김홍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순 공저,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29.

72) 김홍기, “초기 감리교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 김홍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순 공저,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74.

73) 이후정, “존 웨슬리의 영성,” 김홍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순 공저,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145.

74) John Wesley/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 산상설교 X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05. 웨슬리에 따르면, 성례의 효력은 집행자의 적성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례 집행자이신 그리스도의 진실성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덕의 공동체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

#### 4) 덕의 내러티브성과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웨슬리의 산상수훈

덕 윤리가 강조하는 세 번째 방법론은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성숙 혹은 덕의 함양을 위하여 어떠한 훈육의 방법을 갖는가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하우어워스는 기존의 덕 윤리 사상가들과의 차별성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덕의 내러티브 의존성’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가 이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성숙을 위해서는 일정한 습관을 강조하는 정도였고, 아퀴나스 또한 덕목들을 실천하기만 하면 성품은 저절로 생겨난다고 보는 정도였다.<sup>75)</sup> 즉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훈육과 각자의 수행력에 달렸다고 본 것이다.

하우어워스는 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그는 개인적 훈육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러티브라고 보았다.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우리를 타인과 사회,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맺게 하는 방식을 알려준다고 강조한다.<sup>76)</sup>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이 아니라 내러티브며, 도덕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성과 갈등 속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도 내러티브다.<sup>77)</sup> 내러티브는 행위자에게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토대며, 행위자에게 지금까지 이룩한 도덕 발달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독려해 준다.<sup>78)</sup> 하우어워스는 특별히

---

때는 떡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의 영적 교제를 가지게 되고, 비록 성화되지 못한 입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기원한 그 잔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와의 사귄을 가지게 한다고 설명한다.

75) 위의 책, 271.

76) 위의 책, 286.

77) 위의 책, 278.

78) 위의 책, 278-279.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도덕발달에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sup>79)</sup>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품의 계발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훈육은 이야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안에 들어가 살기를 배우는 길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내러티브의 실제 혹은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야기, 곧 성서이며, 특히 예수의 복음 이야기이며, 좀 더 좁히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 이야기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의 해법을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깨닫게 하며, 모험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의 주되신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살게 하셨다는 행복한 소식을 소유한 자들이다.<sup>80)</sup> 결국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 이야기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선물로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나아가 그 이야기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본받는 모방자가 됨으로써, 도덕적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 따라서 하우어워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온전한 이야기 일체의 일부임을 발견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 이야기들의 분명한 개요를 제시해 주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배라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다.<sup>81)</sup> 이처럼 기독교적 확신의 독특성과 성품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내러티브에 대한 강조는 스탠리 하우어워스 신학의 테마 음악이다.<sup>82)</sup>

79) 위의 책, 291.

80) 위의 책, 288.

81) 새뮤얼 웰스, “대부모가 된다는 것,” Stanley Hauerwas, *The Character of Virtue*, 홍종락 역, 『덕과 성품』 (서울: IVP, 2018), 38.

82) 위의 책, 38.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서다. 웨슬리는 칭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듯 성화도 믿음으로 출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본질은 내적이지만 믿음의 증거는 사회적이고 행위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sup>83)</sup> 따라서 그는 브리스톨에서의 옥외설교를 시작할 때 행위를 강조하는 산상수훈을 본문으로 잡았던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교과서가 로마서였다면 웨슬리의 종교개혁의 교과서는 산상수훈이다.<sup>84)</sup> 그는 산상수훈의 내러티브는 성화 생활의 좋은 교훈과 채찍질이라고 생각했다.<sup>85)</sup> 아울러, 웨슬리는 성서 외에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진보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영적 독서를 강조했다.<sup>86)</sup> 그는 88년을 살면서 총 2만 마일을 여행했고, 하루에 평균 50마일을 전도 여행을 했으며, 4만여 회의 설교를 했고, 표준설교 150여 편을 남겼다. 무엇보다 그는 50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설교했다.<sup>87)</sup> 따라서 그의 덕 윤리는 전 인생을 걸쳐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었고, 이것은 하우어워스가 주장하는대로, 내러티브 의존적이다.

### III.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와 덕 윤리

#### 1. 산상수훈설교의 덕 윤리적 재구성과 8주덕

웨슬리는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의 구조를 크게 3부로 구성하여

83) 김흥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김흥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순 공저,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252.

84) 위의 책, 253.

85) 위의 책, 253-254.

86) 이후정, “존 웨슬리의 영성,” 김흥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순 공저,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146. 웨슬리는 신앙생활에서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감리교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하여 50권이 넘는 방대한 『기독교 문고』를 편집, 발행하기도 했다.

87) John Wesley, *The Journal of John Wesley*, 김영운 역, 『존 웨슬리의 일기』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19), 447.

13편의 설교로 펼쳐낸다. 웨슬리는 1부(5장)에서는 참된 종교의 전모 8가지를 비롯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릇된 견해를 밝히고, 2부(6장)에서는 우리의 외적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 동기에 대한 신앙적 규범을 제시하며, 그리고 3부(7장)에서는 종교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룰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88)</sup> 본 연구는 웨슬리의 13편의 설교를 덕 윤리적 관점에서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보았다.

- ① 덕의 내용성 (마 5:1~12 / 팔복 / 산상설교 I, II, III)
- ② 덕의 사회성 (마 5:13~16 / 소금과 빛 / 산상설교 IV)
- ③ 덕의 완전성 (마 5:17~20 /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 산상설교 V)
- ④ 덕의 의도성 (마 6:1~15 / 은밀한 기도와 구제 / 산상설교 VI)
- ⑤ 덕의 고양성 (마 6:16~18 / 금식 / 산상설교 VII)
- ⑥ 덕의 장애물 (마 6:24~34 /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 산상설교 IX)  
(마 6:19~23 / 하늘의 보물 / 산상설교 VIII)  
(마 7:1~12 / 비판, 논쟁, 기도와 구제의 계으름 / 산상설교 X)
- ⑦ 덕의 분별성 (마 7:13~14 / 좁은 문과 넓은 문 / 산상설교 XI)  
(마 7:15~20 /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 산상설교 XII)  
(마 7:21~27 /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 산상설교 XIII)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를 덕 윤리적 구조로 재구성했을 때, 웨슬리가 강조하는 주요 덕목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는 이것을 예수의 팔복에서 그 원형을 찾고 있다. 그는 팔복을 그리스도인이 언약의 땅으로 여행하는 도중 밟아야 할 단계이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용할 원칙이며,<sup>89)</sup>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종교의 참모습이자 인간이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

88) John Wesley, “산상설교-I,”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75.

89)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I)』, 75.

화상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이자 진수라고 보았다.<sup>90)</sup> 따라서 팔복에 제시된 덕목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추구해야 할 인간 내면의 기질<sup>91)</sup>이자 성품이며, 거룩한 감정이자 마음의 태도다. 웨슬리는 진정한 기독교는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팔복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간다<sup>92)</sup>고 밝힘으로써, 덕의 진보적 목적성과 단계적 성화성을 보여 주고자 했다.

첫째, 가난한 마음, 곧 겸손의 덕이다. 웨슬리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이며, 겸손한 자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진 자이며,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는 자다.<sup>93)</sup> 겸손은 경주장을 달릴 때 첫 번째 내딛는 첫발인 만큼 우리의 안과 밖의 죄를 의식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무력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다.<sup>94)</sup>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가꾸시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칭송을 거부하는 태도다.<sup>95)</sup> 웨슬리는 종교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을 교만으로 규정하고, 교만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마음의 가난, 곧 겸손의 덕임을 강조한다.<sup>96)</sup>

둘째, 애통의 마음, 곧 소망의 덕이다. 웨슬리는 애통이란 선한 일과

90) 위의 책, 130.

91) 케네스 콜린스는 웨슬리가 사용하는 ‘기질(disposition)’이란 깨워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인간의 마음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정서보다 훨씬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것으로, 일종의 ‘본래 타고난 내적인 특성들(inherent qualities)’이며, ‘영혼의 고정된 자리(fixed posture of the soul)’로 정의한다. Kenneth J. Collins, *John Wesley : A Theological Journey*, 이세형 옮김, 『존 웨슬리 톨아보기』(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6), 207-208.

92) 위의 책, 75.

93) 위의 책, 77.

94) 위의 책, 79.

95) 위의 책, 83.

96)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II〉』, 96.

용서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갖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한다.<sup>97)</sup> 그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애통은 복된 애통으로써, 여기에는 인류의 죄와 불행에 대한 애통,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애통, 믿음이 연약하고 불성실한 신도들을 위한 애통, 하나님께 끊임없이 저지르는 범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애통을 예로 든다.<sup>98)</sup> 또한 애통은 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과 함께 열린 지옥과 멸망의 함정을 동시에 봄으로써<sup>99)</sup> 생겨나는 소망의 성품이다. 웨슬리는 우리의 믿음이 영혼 속에 뿌리박지 못하게 하는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한 성품은 거룩한 애통의 덕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100)</sup> 애통을 통해 절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기쁨에 이른다는 면에서 애통은 소망을 위한 훈련장이다.<sup>101)</sup>

셋째, 온유의 덕이다. 온유는 극단을 피하는 마음자리이자, 인간 정서의 균형을 잃지 않는 상태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여 분노, 근심, 두려움의 조건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마음이다.<sup>102)</sup> 온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내와 안분과 자족으로 나타나며, 타인의 선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악에 대해서조차 온화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sup>103)</sup> 온유한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견뎌낼 수 있고, 모든 사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의해 잘 조절되는 사람이다.<sup>104)</sup> 웨슬리는 온유의 덕을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할 덕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97)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I〉』, 84.

98) 위의 책, 87.

99) 위의 책, 87.

100)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II〉』, 96.

101) Thomas C. Oden, *John Wesley's Teachings 4, Ethics and Society*, 333.

102) 위의 책, 90-91.

103) 위의 책, 91.

104) 위의 책, 91.

사는 동안 끊임없는 단련을 통하여 날마다 자라야 할 덕임을 강조한다.<sup>105)</sup> 그리고 온유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자족이라는 보조적 덕목이 필요하다.<sup>106)</sup> 아울러, 웨슬리는 온유의 덕은 분노와 조급함과 불만이라는 악덕을 시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107)</sup>

넷째, 의에 주림, 곧 정의의 덕이다. 웨슬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장 자연스럽고 순결한 갈망으로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건전한 욕망과 병적인 욕심이라는 영혼의 세균이 제거될 때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한다.<sup>108)</sup> 그는 예수가 말씀하시는 의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해석한다.<sup>109)</sup> 따라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의에 대한 영혼의 기갈이며, 모든 영적 갈망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이다.<sup>110)</sup>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영적 욕구에 대한 열의는 더욱 가열되어 충족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다.<sup>111)</sup> 본 연구가 ‘의에 주림’을 정의의 덕으로 전환하는 데는 성서적 근거의 불충분성과 웨슬리의 본래 의도에 대한 곡해 가능성이 상존한다. 성서에서의 의(찌대카, 미슈파트)에 대한 용법은 사회적 정의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며, 웨슬리 또한 이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정의의 덕으로 표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적 정의의 원형이자 본래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곧 자비와 사랑의 덕이다. 자비란 불쌍히

105) 위의 책, 91.

106) 위의 책, 95.

107) 위의 책, 96.

108)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II〉』, 96.

109) 위의 책, 96.

110) 위의 책, 97.

111) 위의 책, 97.

여기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사이며, 형제애의 다른 말로써, 다른 모든 덕을 대표한다.<sup>112)</sup> 웨슬리의 자비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에서 충분히 표현되고 있으며,<sup>113)</sup>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자 계명의 완결<sup>114)</sup>이다. 그는 사랑의 덕을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랑론을 그대로 따른다. 곧 사랑은 오래 참고(인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친절하고 온화하며(온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고(겸손),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남의 악을 기억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정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용서), 믿어주며(믿음), 바라고(소망), 견뎌낸다.<sup>115)</sup> 이처럼 다른 모든 덕들을 포괄하고 있는 사랑의 덕은 방수제이자 방화제이며, 무엇보다도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결과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양자를 지향한다.<sup>116)</sup> 웨슬리는 사랑의 덕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서 흘러나와 겸손과 온유와 온순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올바른 마음씨의 총칭’이자 ‘거룩한 행동을 열매 맺게 하는 뿌리’<sup>117)</sup>라고 정의함으로써, 그가 제시하는 덕목들이 신앙과 윤리의 공유-통합적 구도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웨슬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인간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형성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sup>118)</sup>

여섯째, 마음의 청결, 곧 진실의 덕이다. 웨슬리에 따르면, 마음이 깨끗

112) 위의 책, 99-100.

113) 위의 책, 100.

114) 위의 책, 110.

115) 위의 책, 100-107.

116)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IX〉』, 258.

117) 위의 책, 258.

118) 문병구, “존 웨슬리의 『기독교의 완전성에 대한 해설』에 나타난 완전성화의 성서적 기초에 관한 소고,” 『신학과 선교』 52 (2018), 134.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이며,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룩치 못한 성정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두려움으로 완전성화에 이른 사람이다.<sup>119)</sup> 웨슬리는 내면적 진실은 앞서 언급한 겸손과 온유와 정의와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가난(겸손)으로 말미암아 교만에서 깨끗해진 자요, 분노의 난폭한 성정에서 벗어나 온유하고 부드러우며(온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욕망을 갖지 않으며, 의에 주리고 목마름(정의)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여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사랑) 자다.<sup>120)</sup>

일곱째, 평화 혹은 화평의 덕이다. 웨슬리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모든 논쟁과 알력과 분쟁을 극도로 혐오하여 이 지옥의 불이 붙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일단 붙었다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sup>121)</sup> 이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평화가 있는 곳에는 유지하고, 평화가 없는 곳에는 회복하고자 노력한다.<sup>122)</sup> 웨슬리에 의하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대상은 단순히 가족과 친지와 친구, 의견이나 노선이 같은 사람의 울타리를 초월하여 원수에게까지 향한다.<sup>123)</sup> 따라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여 환대하며, 환자와 갇힌 자를 방문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웨슬리는 이들이야말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119)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III〉』, 110.

120) 위의 책, 110.

121) 위의 책, 117.

122) 위의 책, 118.

123) 위의 책, 118.

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sup>124)</sup>

여덟째, 세상에서의 박해 혹은 고난의 덕이다. 박해와 고난은 덕이기도 하지만, 다른 덕들에 의한 결과적 양태이기도 하다. 이른바 겸손과 소망(애통)과 온유와 정의와 사랑과 진실함과 평화의 덕을 가진 사람이 당하게 될 사회적 고통이다. 웨슬리는 기독교적 덕과 성품은 기독교적 동료들과 공동체에서는 호평을 받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폐물 혹은 인간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간파한다.<sup>125)</sup> 즉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나와 생명의 나라로 옮긴 사람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sup>126)</sup> 웨슬리에 따르면, 그들은 의롭기 때문에, 영을 따라 낳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자비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sup>127)</sup> 이것은 일반 덕윤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으로써, 기독교적 덕윤리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덕목이다.

## 2. 8주덕 보론 : 덕의 사회성과 고양성, 그리고 장애물

웨슬리는 자신의 성화론,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8덕목의 원형을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발굴한 후, 이후의 설교에서는 이러한 덕목들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보조적 설명을 펼쳐나간다.

첫째, 덕의 사회성이다(산상설교 IV : 소금과 빛). 웨슬리는 기독교의 덕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며, 사회를 떠나서는 아무리 고귀한 덕도 존재할 수 없다<sup>128)</sup>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에서 온유의 덕보다 귀중

124) 위의 책, 118-119.

125) 위의 책, 125.

126) 위의 책, 120.

127) 위의 책, 125.

128)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IV〉』, 134-135.

한 것도 없지만 사회생활 없이는 존립할 수 없으며, 평화의 덕 또한 사회생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sup>129)</sup> 참된 종교는 필연적으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덕성 또한 자연적으로 세상에 드러난다.<sup>130)</sup> 따라서 웨슬리는 온유와 겸손, 사랑의 수고와 선의의 행동, 유순함,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 참된 거룩의 추구,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나타내야 한다<sup>131)</sup>고 강조한다.

둘째, 덕의 완전성이다(산상설교 V : 더 나은 의 / 산상설교 VI : 은밀한 기도와 구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덕은 바리새인의 덕과 비교했을 때, 더 우세하고 포괄적이며, 내면적이고 정신적이라고 주장한다.<sup>132)</sup> 겸손, 애통(소망), 온유, 의에 목마름(정의), 이웃사랑, 청결한 마음은 모두 내적인 덕이며, 심지어 외적으로 보이는 평화, 박해의 삶조차도 내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외적 실천의 덕이다.<sup>133)</sup> 웨슬리는 종교의 가장 완전한 외적인 의는 마음의 종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sup>134)</sup> 따라서 덕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의도의 순수성이다.<sup>135)</sup> 웨슬리는 의도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보이려는 동기를 경계해야 하고, 은밀하게 행해야 하며, 이 세상의 어떠한 보상도 기대해서는 안됨<sup>136)</sup>을 강조한다. 적어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순결성에서 우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덕의 고양성이다(산상설교 VII : 금식). 웨슬리는 덕이란 그리스

129) 위의 책, 135.

130) 위의 책, 140.

131) 위의 책, 150.

132)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V〉』, 173.

133) 위의 책, 173.

134) 위의 책, 175.

135)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VI〉』, 179.

136) 위의 책, 180-182.

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함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 면에서 금식은 단순히 슬픔, 죄로 인한 고통,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리석음, 분주한 정신, 천박한 기질, 고귀한 것에 대한 경박한 무관심, 정신적 경솔함, 부주의 등에 빠져 고상한 기능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sup>137)</sup> 특히 교만과 허영과 해로운 사욕과 난폭한 성품과 분노와 불평 등의 잘못된 기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식한다.<sup>138)</sup> 웨슬리에 따르면, 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지 이상의 덕, 즉 순결, 정신의 진지함, 양심의 간절함, 예민함과 부드러움, 세상에 대한 자기부정,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천상적인 정감 등을 확증하고 증가시키는 수단이다.<sup>139)</sup> 금식 외에도 웨슬리는 덕의 함양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구할 것을 권면한다.<sup>140)</sup> 물론 그는 인간이 덕을 실천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만이 최종적 병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41)</sup>

넷째, 덕의 교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산상설교 VIII: 하늘의 보물 / 산상설교 X : 비판, 진주, 돼지, 기도). 웨슬리는 기독교적 덕의 교양을 가로막는 외적 장애물로서 재물 탐욕과 축적, 그리고 낭비를 지적한다. 그는 필요 이상의 재물을 탐하고 쌓아두는 일은 유혹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파멸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재물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곧 교만한 마음을 버림을 뜻한다.<sup>142)</sup> 동시에 웨슬리는 필

137)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VII〉』, 203-206.

138) 위의 책, 212.

139) 위의 책, 206.

140)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X〉』, 278.

141)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5권 〈설교84 -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70-85.

142)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VIII〉』, 231-233.

요하지도 않은 돈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욕을 유발하고, 불경건한 성격을 길러주며, 어리석은 기질을 복돋우며, 허영심을 조장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이완시키고 불건전한 정신을 자라게 하며, 생각과 정서 생활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sup>143)</sup>

아울러, 웨슬리는 성결의 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치명적인 내적 장애물들을 언급한다. 첫째는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요, 둘째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줌으로써 일어나는 불필요한 논쟁과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요, 셋째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일이다.<sup>144)</sup> 웨슬리는 이러한 장애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칙으로 황금률에 주목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웨슬리는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대현장이며, 자비와 공의의 윤리이며, 주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의 전체라고 극찬함으로써,<sup>145)</sup> 기독교의 덕은 황금률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고 순수한 도덕이라고 보았다.<sup>146)</sup>

다섯째, 참된 덕과 거짓된 덕의 분별이다(산상설교 XI : 좁은 문과 넓은 문 / 산상설교 XII :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 산상설교 XIII :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웨슬리는 마지막 세 개의 설교에서 참된 기독교적 미덕과 거짓된 악덕을 예수의 세 가지 대립 명제(좁은 문/넓은 문, 거짓 선지자/참 선지자, 모래의 집/반석의 집)를 통해 풀어낸다. 웨슬리에 따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적대관계 속에서 정욕, 자만심, 아집, 세상을 사랑함이 자신의 모든 사고와 성품에 만연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속에는 교만과 허영심과 분노와 복수심

143) 위의 책, 239.

144)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X〉』, 273-278.

145) 위의 책, 280-281.

146) 위의 책, 282.

과 자기중심주의와 쾌락주의에 탐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사람이다.<sup>147)</sup> 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길은 가난한 마음의 길, 애통의 길, 온유의 길, 의에 대한 기갈의 갈등, 자비의 길, 거짓 없는 사랑의 길, 청결한 마음의 길,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길, 의를 위하여 모든 비난과 모욕과 박해를 달게 받는 길이다.<sup>148)</sup>

웨슬리는 덕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는 겸손, 애통, 온유, 거룩한 의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선행, 그리스도를 위한 수난의 길 외에 다른 것을 하늘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자로서, 교만, 경솔, 세상 욕심, 쾌락 즐김, 이웃에 대한 몰인정, 선행에 대한 무관심, 의로 인한 수난과 박해의 회피를 가르친다.<sup>149)</sup> 반면, 참 선지자는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들을 감화시켜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자다.<sup>150)</sup>

끝으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신조, 신앙고백, 기도, 감사를 포함하여 입술로 부르짖는 믿음의 소유자며, 겉으로는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자며,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자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지 못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sup>151)</sup>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복을 빌며, 인간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다.<sup>152)</sup>

147)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XI〉』, 284-287.

148) 위의 책, 288.

149)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XII〉』, 298-299.

150) 위의 책, 303.

151) John Wesley,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산상설교-XIII〉』, 315-316.

152) 위의 책, 317-318.

#### IV. 나가는 말

기독교는 외면적 종교이기 전에 내면적 종교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 성결로 드러나기 전에 개인적 성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행위(doing)를 판단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being)를 성찰해야 한다. 이것은 웨슬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했던 종교적, 윤리적 지향성이자, 성화론의 우선적 관심사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에 나타난 덕의 윤리를 매킨타이어와 하우어워스의 덕윤리 방법론을 통해 해석하고 재구성해 보았다. 웨슬리의 신학을 덕 윤리적 관점에서 주목했던 본 연구의 시도는 그의 성화론에 대한 윤리학적 접근이다. 여기서 윤리학적 접근이란 도덕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칸트의 의무주의 혹은 벤담의 공리주의적 규범윤리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 행위자의 내적 본성과 성품에 주목하는 덕 윤리학적 탐색이다.

물론 웨슬리는 자신의 성화론을 덕 윤리라는 한 가지 주제로만 수렴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성화 윤리는 다양한 이름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화론을 덕 윤리로 풀어내려 하는 이유는 그의 산상수훈설교를 비롯한 표준설교들 속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본질적 관심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한 판단 보다는 행위 이전에 행위자 자신의 내적 본성, 내적 기질, 성품의 변화와 성장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일평생 강조하고 추구했던 것은 마음의 종교이자 내면의 종교였고, 인간 본성의 내적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외적 변화, 사회적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매킨타이어와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의 방법론적 틀에서 본 웨슬리의 덕 윤리 혹은 성품 윤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웨슬리의

성화론은 철저히 목적론적이다. 그의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인 텔로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향한다. 웨슬리의 사상은 그리스도인이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진보와 성장을 통한 완전이라는 텔로스를 향하고 있다. 둘째, 웨슬리의 성화의 윤리는 18세기 이성주의, 계몽주의, 산업혁명, 미국의 독립 등 시대적 맥락을 배경으로 배태되었다는 면에서 역사적이며, 그의 설교 속에 나타난 주요 덕목들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공동체적이다. 특별히 웨슬리의 성품 윤리는 일반 세속적 사회 공동체의 윤리라기보다는, 철저히 교회 공동체 중심의 윤리다. 셋째, 웨슬리의 덕 윤리는 그가 평생 수행했던 설교를 통해 전개되었고, 그 설교는 철저히 성서, 복음, 산상수훈 등 이른바 '하나님 내리티브'에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 내리티브를 설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 성찬식, 세례식, 영성훈련, 영적 독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덕의 함양을 추구했다.

넷째, 웨슬리는 산상수훈에서 덕의 원형을 찾아냈으며, 그것을 어떻게 고양시키고 지속시킬 것에 대한 방법들을 자신의 설교를 통해 펼쳐 보였다. 그의 기독교적 덕목은 팔복을 따르고 있는데, 이른바 8주덕, 곧 겸손, 소망, 온유, 정의, 사랑, 진실, 평화, 고난으로 대별할 수 있다.

웨슬리의 주요 덕목을 8주덕으로 정의하는 일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째, 웨슬리의 덕목을 그의 산상수훈설교 13편에 한정하여 탐색했다는 연구범위의 한계다. 산상수훈설교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 150편 모두를 살펴야 하고, 나아가 그의 일기를 비롯한 생애사를 통해서 좀 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수의 팔복을 웨슬리의 주요덕목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개념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다. 애통을 소망의 덕으로, 의에 주님을 정의의 덕으로 전환할 때 웨슬리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가, 그리고 박해를 고난의 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성화론을 덕 윤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시도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교회적, 목회적 필요에 있다. 오늘날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기독교윤리학의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강조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 특히 인간의 내면적 본성에 대한 성찰과 인간 성품 변화가 요구되는 오늘날 웨슬리 사상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은 교회와 기독교윤리학 사이의 새로운 상호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에서 그가 펼쳐내었던 8주덕과 덕에 대한 그의 보조적 생각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선포되거나, 성경공부나 영성훈련의 장에서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아울러, 웨슬리가 강조한 주요 성품들이 인간 내면의 심리적 측면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심리학과와의 통섭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웨슬리 관련

- Wesley, John,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 산상설교 I ~ XI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웨슬리 설교전집 제5권 - 설교 84 :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The Journal of John Wesley*. 김영운 역. 『존 웨슬리의 일기』.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19.
- Collins, Kenneth J. *John Wesley : A Theological Journey*. 이세형 옮김. 『존 웨슬리 톺아 보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6.
- Oden, Thomas C. *John Wesley's Teachings 4, Ethics and Society*. 장성결 역.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4, 윤리와 사회』. 부천: 웨슬리 르네상스, 2020.
- 강병오. “존 웨슬리의 성화신학과 정치윤리.” 『한국조직신학논총』 36 (2013), 147-178.
- 김성민. “존 웨슬리의 신비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완전.” 『신학과 실천』 28 (2011), 435-470.
- 김흥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순 공저.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5.
- 류재성.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 재해석.” 『신학과 실천』 81 (2022), 315-353.
- 문병구. “존 웨슬리의 『기독자의 완전에 대한 해설』에 나타난 완전성화의 성서적 기초에 관한 소고.” 『신학과 선교』 52 (2018), 121-150.
- 박수암. 『산상보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 배명지. “레비나스 현상학을 통한 존 웨슬리 성결론의 타자성 연구.” 『한국신학논총』 67 (2022), 165-193.
- 양재훈. “J. Wesley and the Addressee of the Sermon on the Mount in his Standard Sermons 16-28.”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0 (2008), 25-42.
- 오성욱. “교회갱신의 관점에서 전망한 존 웨슬리의 성결론.” 『신학과 선교』 56

(2019), 181-217.

유창형.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에 있어서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한 비교 고찰.” 『성경과 신학』 45 (2008), 112-141.

이선희. “John Wesley의 산상수훈 설교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37 (2013), 249-282.

이찬석. “그리스도인의 완전.” 『한국개혁신학』 32 (2011), 49-81.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한기채. “웨슬리와 윤리.”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의 현대적 이해』. 파주: 도서출판 공감마을, 2018.

• 덕윤리 관련

Hauerwas, Stanley.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ical Ethics*. 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5.

\_\_\_\_\_. *Sanctify Them In The Truth*.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6.

\_\_\_\_\_. *The Peace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_\_\_\_\_.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_\_\_\_\_. *The Character of Virtue*. 홍종락 역. 『덕과 성품』. 서울: IVP, 2018.

Kotva, Jr., Joseph J..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문시영 옮김.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 서울: 북코리아 공흥, 2012.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2007.

Milbank, John. *Theology and Social Theory: Beyond Secular Reason*. 서정원 · 임형권 옮김. 『신학과 사회이론: 세속이성을 넘어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Wells, Samuel. “대부모가 된다는 것.” Stanley Hauerwas, *The Character of Virtue*. 홍종락 역. 『덕과 성품』. 서울: IVP, 2018.

김대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현대적 계승-매킨타이어의 덕윤리.” 『서양고전학연구』 28 (2007), 199-223.

김우영. “덕윤리에 있어서 도덕 판단의 기준.” 『범한철학』 80 (2016), 31-55.

노양건. “덕과 윤리.” 『범한철학』 71 (2013), 215-236.

문시영.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위한 조건과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44 (2019), 223-250.

박민규. “알래스대이어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담론.” 『한국조직신학논총』 31 (2011), 189-220.

심장후·노철현. “덕 윤리학에서의 덕 개념과 교육.” 『한국철학논집』 48 (2016), 9-36.

논문투고일: 2022년 10월 08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1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산상수훈설교에 나타난 덕의 사상을 알래스대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덕 윤리적 방법론을 통해 재구성하고, 웨슬리가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적 주요 덕목을 밝히고자 한다. 존재자의 행위(doing)보다는 행위자의 존재(being)에 주목하고, 행위를 위한 도덕규범이나 의무보다는 행위자의 성품이나 덕을 강조하는 덕 윤리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매킨타이어와 하우어워스의 목적론, 역사성, 공동체성, 그리고 내러티브성 개념을 중심으로 웨슬리의 산상수훈설교에 나타난 덕 윤리의 실체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하여 웨슬리의 덕 윤리 혹은 성품 윤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이해하였다. 첫째, 웨슬리의 성화론은 철저히 목적론적이다. 그의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인 텔로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향한다. 웨슬리의 사상은 그리스도인이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진보와 성장을 통한 완전이라는 텔로스를 향하고 있다. 둘째, 웨슬리의 성화 윤리는 시대적 맥락을 배경으로 배태되었다는 면에서 역사적이며, 그의 주요 덕목들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공동체적이다. 셋째, 웨슬리의 덕 윤리는 그가 평생 수행했던 설교를 통해 전개되었고, 그 설교는 철저히 성서, 복음, 산상수훈 등 이른바 '하나님 내러티브'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웨슬리는 예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 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원형을 찾아냈으며, 그가 강조했던 기독교적 덕목은 팔복의 것을 따르고 있는데, 이른바 8주덕, 곧 겸손, 소망, 온유, 정의, 사랑, 진실, 평화, 고난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존 웨슬리, 스탠리 하우어워스, 덕윤리, 성품윤리, 성화론, 목적론, 역사성, 공동체성, 내러티브, 8주덕

---